

문화광장



양 건 건축박사·제주 공공건축가

위기의 시대에 건축에게 던져진 질문

제 건축전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건축행사로서, 주제를 해석한 각국의 국가관 전시는 우리 시대 건축의 시좌를 가능할 수 있는 지표라 할 수 있다.

하심 사르키스의 질문에 한국관의 총감독인 신혜원 건축가는 '미래학교(Future School)'로 응답했다. 베니스에 개관한 한국관은 서울의 미래학교를 비롯한 세계 곳곳의 미래학교와 디지털 환경으로 연계돼, 디아스포라(난민문제), 기후 위기, 사회적·기술적 변화속도 등 인류의 시급한 과제를 놓고 창의적이고 다중적 연대를 의도하고 있다.

을 제공함으로써 기존의 전시개념을 탈피한 것이다. 이를 위해 동원된 작품들을 보면, 서천 갈대 카펫, 한국 전통의 한지방(韓紙房) 등이 공간을 이루고, 완도 미역국과 제주 작가 정미선의 용기에 담긴 차 등이 관람자들에게 촉각적 경험을 제공한다.

반면, 일본관은 젊은 건축가 '카도 와키 코조(門脇耕三, 1977~)'가 총감독을 맡아 '행동의 연쇄, 요소의 궤적(Co-ownership of Action, Trajectories of Elements)'을 주제로 내걸었다.

이제 제주건축문화의 창달이라는 거시적 목표 아래 순항해, 제주공동체의 생존을 위해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란 질문에 응답하여야 할 때다. 제주건축계가 이러한 대응적 자세로 공공기어의 최전선에 위치할 때 이익집단이라는 과거의 인식에서 벗어나 제주 사회의 리더 그룹으로 변화될 것이 기대된다.

전 세계를 팬데믹으로 몰아넣은 코로나19의 상황은 서서히 탈출로가 보이는 듯하다. 바이러스의 공격에 의해 많은 회사를 치렀지만, 반면 인류를 위협하는 여러 난제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 수립의 계기가 됐다

이 질문은 아이러니하게도 세계의 건축가들에게 던져졌다. 지난 5월 말에 개막된 '17회 베니스 비엔날레 국제건축전'의 총괄 큐레이터인 '하심 사르키스(Harshim Sarkis)'가 내세운 주제다. 베니스 비엔날레 국

열린마당

6월 자동차세, 기간 내에 납부합시다



김정현 제주시 용담1동주민센터

안의 자동차세를 할인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

올해 1기분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오는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자동차세 납부는 금융기관 수납창구 또는 금융 자동화기기를 이용하면 된다.

이 밖에도 가상계좌, ARS(1899-0341), 인터넷뱅킹,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사용 등의 방법을 사용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6월 23일까지 조기 납부자와 연세액으로 무작위 추첨을 통해 163명에게는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경품으로 주는 이벤트도 있으니 조기 납부해 부담을 덜어주고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 및 변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라며 더워지는 여름, 건강관리에도 유의하시길 바란다.

1년의 절반을 알리는 6월이 되니 갑자기 날씨가 더워지면서 여름이 오고 있음을 실감하게 된다. 상반기의 마지막 달인 6월에는 매년 더위에 함께 자동차세라는 반갑지는 않은 손님도 찾아온다.

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데 연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에 대해서는 6월에 1년 치가 한 번에 부과 되고 그 이상인 금액의 경우 6월, 12월에 나눠서 부과된다.

연세액이 10만 원 이상인 차의 경우 6월에라도 연납신청이 가능하며 연납신청을 하면 7-12월의 기간동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문재인 정부 임기 말 제주출신 등용 '부쩍'

고주희·정춘생·김한규·오종식

○...문재인 정부 4년차에 들면서 뒤늦게 제주출신들의 청와대 등용이 활발해져 눈길.

문 대통령은 지난 3월 2일 고주희 디지털소통센터장을 임명한 데 이어 지난달 28일에는 정춘생 여성가족부차장, 21일에는 김한규 정부무비서관을 임명하는 등 올해 들어 서만 세 차례에 걸쳐 비서관급 인사에 제주출신을 발탁.

문재인 정부 취임과 함께 청와대 선인행정관으로 임명한 오종식 기획비서관을 포함하면 4명의 제주출신 비서관급 인사가 포진. 부미현기자

해수욕장 개장 앞뒤 안전점검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제주시가 지난 18일과 21일 협재·금능·김녕해수욕장을 방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유원지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상황을 점검.

총 사업비 8억여 원을 투입 지난 4월 착공한 이 사업은 해변 산책로

정비와 경관조명 설치 등 해수욕장 개장 전 완료한다는 방침.

안동우 시장은 현장을 점검하면서 방역 수칙 점검과 야영 금지 구역 내 불법 텐트 설치 강력 대응을 주문하고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해 안전사고 예방 등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 이윤형기자

원 지사 향후 거취 표명은

○...대선 출마를 위해 도지사직 사퇴를 고심 중인 원희룡 지사가 21일 서귀포시청에서 주간정책조정회의를 주관한 가운데 평소 기자들이 출입하는 오전 9시 이전에 마쳐 그 배경에 관심.

이에 일각에선 "최근 국민의힘 당대표로 선출된 이준석 돌풍으로 원 지사는 지난 16일 오전 제주시청에서 조정회의 이후 곧바로 기자실을 찾았지만 거취 표명없이 5분만에 자리를 뜨면서 반쪽, 백극기자

사설

중대 고비 제주, '노마스크' 아직 아니다

7월 본격 피서철을 맞은 제주지역이 현 감염세를 이어갈지, 진정한 중대 고비를 맞을지 제주 고비다. 정부가 백신 접종자에 대한 집중해택(인센티브)으로 노마스크 등 완화된 방역수칙을 냈지만 제주는 본격 피서철 방역 구멍을 우려해 노마스크 불허를 포함한 자체 백신해택 진행에 나섰다.

제주에는 최근 지역 특성에 맞는 제주형 백신 해택 계획을 추진할 예정임을 밝혔다. 정부가 내달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실시 '노마스크'를 허용하는 등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완화와는 별개로 지역에 맞춘 인센티브다. 당장 제주는 다음달 도내 12개 해수욕장 개장으로 방역 비상을 감안한 조치다. 5월 내국인 입도객이 110만여명으로 2019년 같은기간

117만여명의 90% 수준인데다 올해 들어 이달 18일기준 입도객도 작년보다 한달 일찍 500만명을 넘어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어느 때보다 높다. 도가 이미 20일까지 예정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이달 30일까지 열흘 연장한 이유도 상황의 심각성 탓이다.

'제주형 백신 해택' 계획은 '노마스크' 불허를 하지만 직영 관광지 할인, '집중 배지' 배포로 접종자 확인 등 세부 내용을 담고 있다. 제주의 현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는 20일 비수도권 모임금지 전면 해제를 포함한 정부의 완화 지침발표로 조기 바뀔 가능성도 있다.

모두가 피서철 감염 확산의 중대 고비에서 제주의 일상회복을 앞당길 '대역'에 힘을 모아야 한다. 관광지 특성상 곳곳의 감염 위험성이 상존한 현실이다. 피서철 적극 대처 여부는 모임제한·영업제한 등을 조기에 풀어줄 관건으로 작용할 것이다.

막대한 혈세만 쏟아붓는 버스준공영제

원희룡 제주도정이 야심차게 도입한 버스준공영제가 큰 문제다. 해마다 버스준공영제에 쏟아붓는 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다. 말 그대로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이다. 버스준공영제가 '돈 먹는 하마'란 지적이 끊이지 않고 나오는 이유다. 과도한 재정 부담에 대한 개선방안도 나오지 않아 답답한 실정이다.

지난 18일 열린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버스준공영제 가 도마에 올랐다. 버스준공영제에 공공이 노선권을 갖는 대신 버스회사의 표준원가에 따라 업체에 손실(적자분)을 보전해 주는 제도다. 송창권 의원은 "최근 준공영제 폐지부터 시작해 완전공영제, 준공영제 보완 등 준공영제 관련 이야기들이 많다"고 운을 뗐다. 송 의원은 "준공영제 이전보다 버스 수송분담률 등 개선점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도민 혈세로 일반 사기업에 먹여 살려주는 꼴

이라며 대안없는 버스준공영제를 질타하고 나섰다.

버스준공영제는 2017년 8월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맞물려 도입됐다. 문제는 버스준공영제 운영으로 너무 많은 재정이 투입된다는 사실이다. 지난해 12월 도의회의 해 제주도 예산심사 때도 막대한 예산문제가 쟁점이 됐다. 당시 박원철 의원은 "원 도정의 최고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면서 7개 버스회사에 재정지원한 비용만 5000억원"이라고 주장했다. 또 관련 연관 사업까지 포함하면 7000억원 가까이 들어갔을 것이라며 예산절감 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 매년 1000억원에 달하는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대중교통 활성화는 요원한 상황이다. 버스 수송분담률이 단적으로 말해준다. 2017년 14.7%, 2018년 말 14.2%, 2019년말 14.6%로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다. 언제까지 대책없이 버스준공영제에 도민의 혈세만 쏟아부을 것인가.

부 고 현종학 아버지 연주현공 덕삼(향년 88세, 前 경찰공무원, 국가유공자)께서 서기 2021년 6월 20일 20시 30분경 별세 하셨습니다.
일 포: 2021년 6월 23일(수요일)
발인일시: 2021년 6월 24일(목요일) 오전 7시 30분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4빈소
장 지: 조천읍 선흘리 가족묘지
아들 현종학 며느리 김정은
종훈 안성희
딸 현복희 사위 강선일
복례 강명돈
복자 정공철
* 연락처: 현종학 010-7444-6945
현종훈 010-9458-3301

부 고 김성배(법무사) 아버지 경주김공 일승(국가유공자, 향년 92세)께서 서기 2021년 6월 20일 09시 55분경에 별세 하셨습니다.
일 포: 2021년 6월 22일(화요일)
발인일시: 2021년 6월 23일(수요일) 오전 6시 30분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2빈소
장 지: 양지공원-천왕사
아들 김성배 며느리 황수옥
성남 김미희
딸 김복희 사위 정희규
복신 고종진
복춘 김성태
손자 김기환
김경환
* 연락처: 김성배 010-3699-0063
김성남 010-6703-9555
김복희 010-6789-2204
김복신 010-2994-5556
김복춘 010-9870-5680
황수옥 010-6636-4854

탈퇴공고 본 대한예수교 장로회(통합) 열방제자교회는 공동의회의 결의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주노회, 통합교단을 탈퇴함을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2일
대한예수교 제주노회 장로(통합) 열방제자교회
담임 목사 양두신 및 교인 일동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실으로 감사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물 미국식품의약국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 /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홍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 712-3644, 782-3644, 010-4690-3636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